

『율리시스』 독회: 「키르케」

김 경 숙

<일러두기>

- 기록 내용은 다음 세 가지, 즉 독회에서 개진된 견해를 정리자가 기록한 부분 (발의자 이름 표시), 독회에 참석한 회원이 독회 후에 첨삭 정리해서 보내온 메모 (발의자 이름 뒤에 *표시), 불참한 학회 회원이 개별적으로 보내온 의견 (발의자 이름 표시)으로 구성된다.
- 1차 정리한 독회기록문은 참석자에게 초고 형식으로 회람되어, 첨삭의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을 거쳐 완성된 독회기록문을 학회홈페이지 및 회원에게 최종 본으로 송부한다.
- *Ulysses*는 Gabler 판본에 의거하여 장과 행을 표시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처를 별도로 밝히지 않는다. 출처를 밝힐 필요가 있을 경우 U라고 표시한다.
- 독회에서 거론이 되었더라도 Gifford의 주석본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은 기록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록할 경우 (G)로 표시한다.
- 발제자의 모두(冒頭) 발제는 <발제>, 참가자 간의 의견 교환은 <토론>으로 표시한다. 사후 접수된 의견 가운데 제목이 붙어있고 비중이 있으며 논점이 명확한 해제의 글은 <토막썰평>으로 분류한다.

■ 아래의 기록 정리는 앞으로 계속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으며, 그 최종본을 학회지에 일괄 전재한다.

제 73회 『율리시스』 독회

<모임>

장소: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424호

일시: 2010. 1. 16. (토) 오후 2:00-6:00

독회진행자: 이영심

범위: *Ulysses*, Chapter 15 “Circe,” Lines 2328~2487

참석자: 김종건, 김상욱, 이영심, 강서정, 이종일, 남기현, 이인기, 홍덕선, 김경숙, 김석, 손승희, 김길중, 정인경, 배하은(서울대 영어영문 학부생), 조진영(서울대 경제학과 학부생), 이가람(서울대 영어영문 학부생)

<발제>

줄거리 및 주요내용

1. Bloom과 Virag의 대화

주 내용은 배경이 되는 장소인 매춘굴과 밤이라는 시간과 부합하는 매춘부들과 성적인 부분에 대한 암시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갑작스러운 변형(transformation or metamorphosis)이 자주 등장한다. 예를 들면, 매춘부가 오리로 변한다든지 남성이 여성이 되는 등 언급되어지는 내용으로 즉시 변환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Virag의 언어 스타일은 직설적이고 노골적이고 질펀하며 다소 해학적이다. (마치 우리의 전통적인 마당극에서 들어봄직한 대사들) 엉덩이를 강조한 치마라든가, 매춘부들을 소개하면서 돈만 있으면 자신의 취향에 맞는 그들을 마음대로 고르는 과정에 대한 묘사는, 여성의 성이 상품화되어 있는 측면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다. 여기서 드러나는 풍자와 코믹한 분위기는 이에 대한 간접적인 비판을 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매춘부를 자빠뜨리라는 등의

노골적인 대사가 나오다가 화제는 갑자기 다래끼나 사마귀에 대한 민간요법에 대한 이야기로 건너뛴다. 사마귀 떼어내기를 절단술이라고 과장하면서 이에 대한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던 Virag가 내뱉는 “승고한 것으로부터 우스꽝스러운 것으로 떨어지는 것은 단지 한발 짝 차이(From the sublime to the ridiculous is but a step)”의 대사는 이 장의 중심모티브와 관련성을 갖고 있다. 하지만, 곤충의 교미에 관한 내용으로 돌아감으로써 다시 성담론으로 복귀한다. 또한 *Sexology or Love Passion*라는 책 제목을 끌어들이 성적(性的) 주제를 다시 강조한다. 이어 여성의 엉덩이에 대한 노골적인 묘사로 이어지며, 여기서 이브와 뱀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의견을 제시한다. 찬송가라고 부르는 내용 역시 소의 팽창된 젖가슴에 관한 것으로 종교에 대한 희화화도 드러낸다. 또한 블룸이 갑자기 내뱉는 “본능이 죽음과 삶을 지배 한다”라는 말은 이 장의 중심적인 주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2458) 이후 **나방**이 등장하여 자신이 과거에는 왕이었지만, 지금은 아주 작은 존재라고 노래한 다음에 여성의 속옷을 찬미한다.

2. Henry Flower, Stephen, Linch, Philip Sober, Philip Drunk, Zoe의 등장

블룸의 분신중의 하나인 여성적인 복장(옷, 모자, 구두)을 한 Henry Flower가 낭만적 구원자의 얼굴 형상으로 등장하여 돌시머를 연주하며 “There is a flower that bloometh(오페라 *Maritana*)”를 부른다. Stephen과 함께 Philip Sober와 Philip Drunk(사실 둘의 대사를 통해서는 누가 취하고 말짱한지 구분이 안됨)를 등장시켜 Stephen의 술 취한 상태를 강조하며, 특히 Stephen의 언어가 문법적으로 해체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는 오전에 있었던 Deasy 교장과의 불쾌한 면담의 기억을 떠올리다가 자신의 음악적 재능에 대해 자랑하며 예수홍내를 낸다.

3. 다시 Virag의 등장(Virag 12, 13, 14,15)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언급한 뒤, 성직자들의 성적 비밀을 안다고 호언 장담한 뒤에 남성과 여성의 성기나 성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 뒤 이어 예수의 탄생에 대한 여러 가지 가설(매춘부가 낳았다는 등)을 이야기한다. 이어서 남성들의 불능, 매독등 성과 관련된 내용이 언급된다. Virag는 또한 로마대장이 마리아를 능욕했을 것이라는 내용 등에 대해서 언급한다. 헨리는 잘려진 여자 얼굴을 가슴에 대고 어루만지고 있다. 자신의 가죽을 벗기고 털갈이를 하면서 비러그가 퇴장한다.

4. 스티븐의 추기경으로의 변모

Cardinal Sins(주요 죄악들) 대해 이야기하다가 블룸이 대주교로 변한 것과 유사하게 스티븐이 추기경으로 변모한다.

본문 관련 문제제기

1. Never put on you tomorrow what you can wear today. Parallax. 의도적으로 잘 알려진 경구를 패러디하면서 재미를 더하고 있는 이 부분의 그 효과와 의도는 무엇인가? 그리고 Parallax라는 단어가 여기서 지칭하는 내용과 그 함축하는 바는 무엇인가?
2. VIRAG 가 여성 매춘부들을 소개하는 장면에서 장면에서 마치 물건을 경매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permit me to draw your attention to item number three.” and “We can do you all brands, mild, medium and strong. Pay your money, take your choice.”) 이것은 혹시 성마저도 상품화되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 비판이라는 문제와 연관을 맺고 있는가?
3. BLOOM의 “When you come out without your gun.” 이 부분은 성적인 불능의 상태를 의미하는가?
4. Virag가 설명하는 다양한 민간요법은 이 장에서 어떤 측면에서 등장하고 있는가? (ex. “Pellets of new bread with fennygreek and gumbenjamin swamped down by potions of green tea endow them during their brief existence with natural pincushions of quite colossal blubber.”)
5. “From the sublime to the ridiculous is but a step.” 이라는 구절은 이 장의 주제인 변형, 혹은 전복과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인가?
6. “tomorrow is a new day will be. Past was is today. What now is will then tomorrow as now was be past yester.” 이 문장을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분석한다면?
7. “Nightbird nightsun nighttown.” 이 장의 배경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구절로 볼 수 있는 것인가?
8. 전반적으로 여성이나 남성의 몸의 부분이나 성적 행위에 대한 암시가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장에서 지나치게 이성이나 정신만을 강조하고 몸

(body)에 대한 부분을 경시하는 서구 철학사에 대한 비판의 내용과 연관을 지을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문제?

9. 나방(moth)는 특별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The Moth

I'm a tiny tiny thing / Ever flying in the spring / Round and round a ringaring.
Long ago I was a king, / Now I do this kind of thing / On the wing, on the wing! / Bing!”

10. Henry Flower로 등장하는 블룸은 여성적 복장과 신발을 착용하고 등장하여 그의 여성성을 강조한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보다 풍부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으면 한다.
11. Philip Drunk and Philip Sober라는 대립적인 인물을 등장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지나치게 이부분법적인 사고에 틀어박혀 있는 서구 이성사나 철학사에 대한 비판과 연관 지을 수 있는 것인지?
12. 아침에 있었던 Deasy와의 언쟁이 STEPHEN의 의식을 짓누르고 있는데, 이장에서 스티븐의 무의식을 가장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는 측면들은 무엇인가?
13. 또한 스티븐은 예수 흉내를 내고 있는데, 아일랜드 카톨릭과 종교에 대한 비판과 연관을 맺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함축하는 바를 알아본다면?
14. “Perfectly logical from his standpoint. Fall of man. (Harshly, his pupils waxing. To hell with the pope! Nothing new under the sun. I am the Virag who disclosed the sex secrets of monks and maidens.”
 이 부분에서 나타나는 것은 인간의 타락이라는 창세기부터 전제되어 내용과 관련을 맺고 있으며, 역시 종교적인 함축을 담고 있다. 또한 성직자의 성생활이라는 금기시 되어온 내용을 건드리고 있어서 종교적인 부분에 대한 비판과 관련을 맺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를 진행해 본다면?
15. 추기경으로 변모한 스티븐 역시 종교적인 내용과 연관된다. 이 부분이 함축하는 바는?

<토론 및 의견>

<이종일>

-1. 2334. “Parallax”를 변위(變位)로 번역하는 것보다 시차(視差)로 번역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함. 이희승 사전에 따르면, 변위는 단순히 “물체가 위치를 바꾸는 일, 그 크기와 방향을 나타내는 양” 즉 displacement의 의미이다. 반면에 시차는 (1)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두 장소에서 동일한 물체를 보았을 때의 방향의 차 (2) 관측자의 위치에서 본 천체의 방향과 어떤 표준의 점에서 본 천체의 방향과의 차... 즉 parallax의 의미이다. *Ulysses*에서도 관찰자가 위치를 바꾸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각도에서 볼 때 사물이 달라 보이는 현상, 즉 상대성에 초점이 있다.

-1. 2359. “rere”는 “rear”일까?

-1. 2380. “It has been an unusually fatiguing day, a chapter of accidents.”는 곧 *Ulysses* 자체에 대한 allusion이라는 점에서 self-referential한 문장이다.

-II. 2401-02. “From the sublime to the ridiculous is but a step.”은 Brunonian concept of “coincidence of opposites”의 개념으로 *Ulysses* 텍스트 전체에 걸쳐서도 구성원리로 작용한다(가령 Virgin Mary와 Gerty가 병치되는 Nausicaa 장은 그 한 예이다).

-II. 2409-10. “But tomorrow is a new day will be. Past was is today. What now is will then morrow as now was be past yester.”는 (자신 없지만) “But what is tomorrow now will be a new today. What was past was once today that is now. What now is today will be tomorrow when seen from the point of yesterday as what now is will be yesterday that was past when seen from the point of tomorrow.”로 rephrase될 수 있을까? 번역한다면 “지금은 내일인 것이 내일이 닥치면 (오늘이라는) 새 날이 될 것이다. 나중에 과거로 보이는 것도 당시엔 오늘이다. 그렇다면 지금이 지나간 어제가 되듯 현재인 지금도 한때는 내일이었다.”가 될는지?

-II. 2412-27. day insects에서 night insects로 넘어가면서 밤의 이미지가 지배한다.(특히 I. 2426) “these night insects follow the light”는 피지배(주변) 세력인 밤 곤충이 지배(중심)담론인 빛을 추구한다는 은유로도 읽히고, “light”를 이 문맥에

서처럼 성적 욕망으로 본다면 Circe장에 대한 self-conscious한 표현으로도 읽힌다.
II. 2457-58의 “Instinct rules the world” 참조.

-I. 2523. “Reduplication of personality”는 현대의 복제인간(clone)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한다. 이와 관련, 서유기에서 손오공이 머리털(DNA가 들어 있다)을 뽑아 자신의 clone을 만들어낸다는 발상은 소름끼칠 정도의 예지를 보여주는 것 아닌가?

<손승희>

-2333행 “Never put on you tomorrow what you can wear today”라는 구절은 매춘부를 보이는 여성 즉 옷이라는 상징을 사용하고 남성은 향유의 주체로서 카멜레온처럼 매번 여자를 바꾸라는 식의 말로도 해석가능하다.

-2334행 “parallax”(시차)의 의미를 공간의 시간적 변위로 이해한다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 달라지는 별자리 위치와도 연관되는 착시현상을 뜻하여 보는 계량은 근사치이며 나아가 인간 세상 논리도 상대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생각, 즉 절대논리 혹은 결정론 같은 것에 대한 조이스의 반대입장을 드러내는 듯하다.

-2401행의 “square the circle” 부분은 수치화, 계량화 노력의 한계를 보여준다. 이는 fixation에 대한 조이스의 비판의 일면으로 볼 수 있다.

<강서정>

-스티븐이 등장하기 전까지 Bloom과 Virag의 대화는 스티븐과 블룸의 만남, 형이상학과 형이하학의 만남, 과거와 현재의 만남을 준비하여 보여주는 듯하다. 과거는 과거에 머물지 않으며, 현재나 미래 안에도 과거가 존재한다. 그것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고민해왔고, 설명하고자 하였던 방식들이 과거에도 현재, 미래에도 돌고 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례로 seeming(appearance)과 reality 사이의 간극을 중요하게 다루었던 고대, 중세 문학의 주제는 현대 문학에서도 반복되며, 인간을 자연과 정신의 영역으로 분리하고 자연적인 본능과 초월적인 정신 세계 사이의 대립 구도로 몰고갔던 수많은 담론들도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할아버지와 손자와의 대화는 동일한 대상이 보기에 따라 성과 속, 순결한 것과 난잡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 즉 우리가 대립적으로 보는 것들이 사실은 한 가지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 같다. “오늘 입을 수 있는 것을 내일 입지 말라.”는 말은 거꾸로

우리가 오늘 입을 수 있는 것을 내일 입고, 같은 방식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옷은 몸의 특정 부분(ex> 엉덩이)을 과장하거나 포장하여 실체를 가리는 역할을 한다. 종교도 문학도 철학도 정치도 역사도 reality보다는 appearance에 치중하는 옷과 같다. 조이스는 동일한 대상에 입히는 과장된 옷들을 포괄적으로 보여주면서 그 대상의 본질을 직면하게끔 독자들을 자극한다.

- 불에 뛰어드는 moth: 김종건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 moth의 노래 후 앞의 과격적이며 물질적인 담화는 낭만적인 분위기로 선회한다. 그러나 불에 뛰어드는 나방은 낭만적인 사랑 뿐 아니라 육체적인 사랑을 함께 전달한다. 본능처럼 강한 욕망에 사로잡혀 불로 뛰어든 후 타죽는(burn & die) 것 자체가 강한 성적 은유를 담고 있으며, 다른 문학 작품 곳곳에도 불나방의 은유가 종종 발견된다. 나방이 마지막에 여성의 속옷을 노래하는 부분은 그것이 끌리고 추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조이스가 이 은유를 사용한 의도를) 알려준다. 결국 스티븐이 입는 낭만적인 옷도 욕망/ 인간의 삶과 피를 완전히 가리지는 못함을 예고하는 것 같다.

-(2572행) He has a father, forty fathers. He never existed.40이라는 숫자는 구약과 신약에 걸쳐 여러 번 나오는데, 완전, 신성, 완성을 뜻하는 숫자이다. 아버지가 하나, 40명이라는 말은 모순인 것 같지만, 한 분이자 완전한 분의 아들(즉 신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고, 그런 신의 아들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다는 말인 것 같기도 하다.

<김경숙>

-2334행의 “paralax”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이유는 Virag가 Kitty의 복장에 대해 논평을 가하던 중, 엉덩이를 강조하는 옷차림에 의해 Kitty의 몸매가 달리 보일 수 있음을 의미하기 위해 “관점에 따라 사물의 모양이 달라진다”는 뜻을 지닌 “paralax”라는 단어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15장 417페이지부터 Virag가 등장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Virag와 Bloom 사이의 성담론이 삽입된 이유는 무엇일까? Lynch가 Zoe의 치마를 막대기로 들추자 Virag가 등장하는데 Zoe가 Bloom의 조모의 이름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녀의 남편인 Virag가 등장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Virag를 Bloom의 내면의 투사로 보았을 때, 성에 대한 분석적이고도 의학적인 담론이 등장하는 이유는 Bloom의 성적 좌절을 덮어버리고자 하는 Bloom의 무의식적 노력에서가 아니었

을까. 2348행에서 Bloom은 “(regretfully) When you come out without your gun”이라 말하는데 여기서 총이 성기를 의미한다고 본다면 총을 가져오지 못한 Bloom은 사창가에서 성을 성으로 대응할 수 없는 입장에 놓여있는 셈이다. 그렇기에 자신의 무능력함에 대한 보상으로 어렵고 복잡한 의학담론을 등장시키는 것은 아닐는지.

<김길중>

-419쪽 상단의 Bloom의 stye는 다래끼와 돼지우리 두 뜻의 punning으로 볼 것이 아니라, 바로 앞에 Virag의 말에 (돼지의) Wallowing의 있으니까 ‘돼지우리’가 일차적인 뜻이고, punning의 요소는 ‘돼지우리’에서 연상되는 Homer의 Circe의 마법과 nighttown의 ‘돼지우리’같은 음습함일 것이다.

-Gabler 421쪽 중간 Virag의 기이한 말 Who’s moth moth? Who’s dear Gerald? Dear Ger, that you? O dear, he is Gerald. 는 이전 판에서 Who’s Ger Ger? Who’s dear Gerald? 였음. 겹보기로는 원래의 텍스트가 더 잘 읽히는 것 같은데, Gabler는 기술적 판단으로 교정한 것인가? Who’s moth moth? 가 갑작스럽고 moth 반복의 뜻의 애매함(그냥 더듬는 것? 다른 뜻?)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moth의 출현을 유도하는 장치로서 정당하고, 이것이 의도라는 조이스의 낙점을 정황이라도 있었는가? 교정된 moth moth는 Ger Ger의 더듬음과 보조를 같이하는 것인가?

<토막총평>

[단상 한 토막: Virag-Joyce as Medical Pervert?]

김길중

418쪽 하단의 Virag의 말은 복잡하고 현학적이어서 쉽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결국은 여성 성기에 관한 의(醫medical/擬pseudo) 과학적 과잉기술 형식의 너즈레인데, 이 언저리의 수상한 수작가운데 가히 절정의 순간이다. 이런 유식한 farce는 Cyclops 장 초두의 차상인 Gerarty 소장(訴狀)의 과잉 법식문장이나, 뒤의 Ithaca 장의 유식한 문답 수작과 스타일의 의도에서 비슷하되, 금기(taboo)를 침범하는 관심 내용이 다르다. 작품에는 오며가며 이런 유의 위험천만한(risky) 구절이 스치

지만, 여기서는 유식의 장막으로 앞을 가렸으되, 노골적이고도 전면적으로, 이를 테면 줄지에 당한 느낌이 든다. 황당하게 희롱당하여 불쾌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몰래 재미있는가, 무슨 뜻이라도 숨어 있는가, 분간과 가늠이 어렵다. 이런 터부의 소재와 정통외설에서는 서로 불가상충한 유식 떠는 말본새는 무슨 의미, 무슨 효용, 무슨 의도를 가지는가. 음흉한 것인가, 음탕한 것인가. 가볍고 우스운 것인가, 무겁게 심각한 것인가, 그냥 뜻 없이 독자를 자극하고 겸하여 우롱하는 것인가, 우스개인가, 우습기는 한 것인가. 관음 같은데 실제로 관음이라면 왜 불관자 ‘관’하지 않고 유식언사로 보이지 않게 장막을 치는가. 관음의 의도가 있되 그 부담이나 제 삼의 의도가 끼어들어 왜곡 회피하게 된 것인가, 그래서 기괴하게 현학적으로 빠진 것인가.

동서울 올림픽 공원 한 구석에 내게는 잊을 수 없는 야외 조각 작품하나가 상설되어 있다. 긴 자루가 달린 거대한 식칼 넷이 정방형을 이루며 거꾸로 세워지고 네 칼의 예리한 끝 약간이 아프게 땅을 침범하고 있다. 긴 칼자루 넷은 각기 하늘로 향해 거꾸로 곧추 섰다. 각각의 칼자루를 묶은 밧줄이 밖으로 굽은 네 버팀목 각각에 비껴 매어져 있고 안으로는 서로 얽혀 중앙 허공에 그물을 만들고 있는데, 이 그물 위에 엄청나게 큰 바위가 실려서 네 칼을 짓누르는 형상으로 얽혀 있다. 불경하고 망측한 작품이다. 산책길에 오며가며 나는 이 해외 작가의 괴기 취미와 이를 수용한 공원 설계자의 몰상식에 혀를 찼다. 작품의 미명하에 어머니 대지에 칼을 꼽다니! 그러나 여러 해 쟈. 나는 그곳을 지났고, 지날 적마다 낮빛을 굳혔다. 몇 년인지 지나갔다. 그러나 미움은 스무 번 서른 번 거듭해도 가지지 않았다. 그렇게 남은 미움 때문에, 어느 날 나는 벗어나서 플라크에 각인된 조각가의 논변을 읽어 보았다. 그랬더니, 이르되, 오늘날 우리들이 문명의 이름으로 하는 짓거리가 이것이다, 이래서야 되겠는가, 운운... 그렇게 적혀있었다. 그랬구나. 이것으로 조각가에 관한 오해의 일단은 석명 된것 같았다. 법리적으로는 그랬다. 그러나 마음에 남은 느낌의 앙금을 깨끗이 해지지는 않았다. 심미적 정당성의 문제까지 석명된 것은 아니었다. 각설하고, 다시 조이스의 Circe 그 자리로 돌아와서, 각각의 독자가 이 외설혐의(『젊은 예술가』에서 스티븐의 미학 논법에 따르면, 외설의 kinetics가 작용하는 구절인지 의문이지만) 짙은 문체의 고비를 지나가면서,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반응을 확인하고 양심껏 욕망과 위선이 뒤섞인 누추하고 못한 자신의 진실의 수준을 되돌아보라는 야속 야비한 그러나 적실한 책략인가. 이

런 기막힌 책략 이 의도함 없이 Pervert Joyce의 자기도취, 자기현시로 표현된 것인가. 리처드 라이트는 자기 소설의 서문에서 흑인 주인공이 고운 백인 여성을 살해하는 세세한 장면의 뜻은 돈 많은 미국 백인 은행가 집안의 세상 물정 모르는 딸들이 책을 읽고서 소스라치라는 것이라고 억지추향 같은 깨우침의 말을 하였는데, 조이스에게도 상응하는 도덕적, 심미적 숨은 비전이 있는지, 억지추향 같은 어떤 열망이 어디 쫓 숨어 있는지, 이것도 숭고한 조이스의 한 단면인지, 난해극치(!), 밤 환영이 가득한 Circe에서도 특히 이 언저리는 Pervert Joyce의 독자 희롱(reader-baiting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이 우심하기 짝이 없다. (*)

제 74회 『율리시스』 독회

<모임>

장소: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424호

일시: 2010. 2. 20. (토) 오후 2:00-6:00

독회진행자: 이영심

범위: *Ulysses*, Chapter 15 “Circe,” Lines 2488~2691

참석자: 강서정, 길혜령, 박진훈, 손승희, 김경숙, 최석무, 이인기, 김철수, 김길중, 홍덕선, 전은경, 윤희환, 이종일, 민태운, 남기현

<발제>

줄거리 및 주요내용

1> 2488-2539

기타를 치면서 헨리(Henry)가 등장하고 그 뒤에 스티븐(Stephen)도 나와서 아침에 디시(Deasy)와 나누었던 대화내용을 상기한다. 그는 자신이 약간 취했다고 말하면서 피아노로 단조를 연주한다. 알미다노 알티포니가 지휘봉을 들고 등장하고 플로리(Florry)가 스티븐에게 사랑의 노래를 청하자 그는 자신이 세련된 예술가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류트(lute)에 관한 편지를 기억하느냐고 린치(Lynch)에게

묻는다. 이때, 플로리가 스티븐을 노래할 수 있지만 노래하지 않으려하는 새라고 놀린다. 이 때 두 명의 옥스퍼드 연구원인 술 취한 필립(Philip Drunk)과 취하지 않는 필립(Philip Sober)이 매튜 아놀드(Matthew Arnold)의 가면을 쓰고 등장한다. 맨 정신의 필립은 경비 계산을 열심히 하고 있고, 술 취한 필립은 바이런과 스윈번을 언급한다. 스티븐은 예수의 말을 인용하고 플로리는 그에게 메이누쓰(Maynooth)출신이라는 것을 묻자 그는 그렇다고 말한다. 그러자 두 필립은 그에게 책과 물건, 물푸레나무를 가지고 있는지를 묻고 몸을 잘 보살피라고 이야기한다.

- a. 블룸, 스피븐, 알티포니이 모두 음악과 연관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음악의 역할은?
- b. There is a flower that bloometh. (2489-2490) → 블룸 자신이 하는 이 대사를 블룸이라는 인물의 특징과 연관 지을 수 있는 것인지?
- c. Play with your eyes shut. (2495)
3장의 첫 구절 “Ineluctable modality of the visible: at least that if no more, thought through my eyes”과 상반된 내용인 것인지, 아니면 같은 맥락인 것인지?
- d. Imitate pa. (2495)
Stephen에게 아버지는 극복의 대상이라고 생각되는데, 아버지를 모방하라는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 e. Both are masked Matthew Arnold face. (2514)
여기서 Matthew가 언급된 것은 어느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하는지?
- f. Reduplication of personality (2523) → 함축하는 바는?
- g. The bird that can sing and won't sing. (2511)
스티븐에 대한 플로리의 이러한 언급은 그의 현재적 상태에 대한 암시인가? 아일랜드의 현실에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마음껏 펼치지 못하는 상태?
- h. 바이런의 인용(Zoe mou sas agapo 2524)하거나 스윈번(2527)을 언급하는 것을 통해서 함축하는 바는?

2>2540-2618

조위(Zoe)가 등장하여 성직자가 이틀 전에 이 곳(매춘굴)을 다녀갔다고 이야기하고, 비러그(Virag)는 자신이 성직자들의 성적 비밀을 밝혔으며, 그 때문에 자

신이 로마교회를 떠났다고 말한다. 그는 이어서 남녀의 성교에 대해서 묘사한다. 그리고 예수의 출생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며, 그 이야기 가운데는 예수가 매춘부의 아기라고 말하는 부분도 있다. 매춘부 키티가 등장하여 지미(Jimmy)에게서 매독이 옮은 메리 쇼탈(Mary Shortall)이 낳은 아이가 경련으로 질식하자 장례식 비용을 추렴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나서 모자를 벗어 매혹적인 자신의 머리를 드러낸다. 린치는 메치니코프가 유인원에게 매독균을 접종했던 이야기를 하며, 비러그는 로마의 백인 대장(Roman centurion)이 미약(lovephilters), 밀랍(whitewax), 그리고 꽃을 팔았던 마리아를 능욕했던 이야기를 한다. 이어 코끼리 벤 돌라드(Ben Dollard)가 캐스터네츠를 치면서 등장하여 요들송을 부른다. 처녀들인 간호원들이 등장하여 벤을 습격한다.

- a. Perfectly logical from his standpoint. Fall of man. Nothing new under the sun. (2544) → 이 부분이 함축하는 바?
- b. 비러그의 성직자의 성적 비밀(the Sex Secrets of Monks and Maidens: 2547) 언급은 카톨릭의 타락에 대한 간접적인 비판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실제로 아일랜드에서 이것이 문제가 되었는지?
- c. 비러그의 남녀 성행위 묘사(2549-2556)가 구체적으로 상징하는 것은?
- d. A son of a whore (2775)?
- e. Qui vous a mis dans cette fichue position, Philippe? (2582)
C'était le sacre pigeon, philippe. (2583)
여기서 신성한 비둘기가 상징하는 것은?
- f. 세 명의 처녀(virgin) 간호사들이 코끼리 벤 돌라드를 습격하는 것이 함축하는 바는?

3> 2619-2691

헨리는 여인의 잘려진 머리를 애무하면서 등장하고, 비러그는 자신의 살가죽을 벗기며 털갈이를 하면서 작별인사를 한 후에 죽마걸음으로 뛰어서 코리를 세우고 교묘하게 벽에 전단지(The Flybill)를 붙인다. 이어 전단지가 등장하고 헨리는 모든 것들이 사라졌다고 탄식한다. 스티븐은 루터를 암시적으로 언급하고 안티스네스(Antishenes)와 아리우스(Arius)를 언급한다. 플로리는 스티븐을 spoiled priest라고 말한다. 이에 린치는 그를 추기경(cardinal)의 아들이라고 말한다. 이를

받아서 스티븐은 ‘중요한 죄’(cardinal sin: 자만, 분노, 사기, 증오, 나태, 탐식, 육욕)를 언급하고 그것과 관련된 구두쇠 수도회(Monks of the screw)를 이야기한다. 곧 그는 사이먼 스티븐 후기경의 모습으로 머리 한 쪽에 납작해진 실크 모자를 쓰고 붉은 신부복을 입고 샌달과 양말을 신고서 난쟁이 복사들과 함께 등장한다. 그는 지하 감옥에 갇혀 누워 있는 콘서비오(Conservio)에 관한 내용을 읊조리며, 아일랜드 민요 Nell Flehety’s Drake를 패러디한 것을 즐겁게 부른다. 이 때 수많은 작은 날벌레들이 그의 법의 주변에 몰려들자 자신의 고통을 토로한다. 그는 부활절의 키스를 보내고 자신의 몸의 크기를 복사들의 크기로 줄인 다음에 질질 끌면서 퇴장하고 난쟁이 복사들이 그의 뒤를 따른다. 그의 목소리만이 ‘Winds that blow from the south’의 가사의 일부를 떨리서 부른다.

- a. caressing on his breast a severed female head (2620): 여기서 여자는 누구이며, 또 이 장면이 함축하는 바는?
- b. Sloughing his skins, his multitudinous plumage moulting (2623): 왜?
- c. All is lost now (2635) – 왜? 그리고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것을 무엇을 가리키는지?
- d. 스티븐의 루터에 대한 암시 “You would have preferred the fighting parson who founded the protestant error” (2641-2642)는 어떤 뜻으로 해석을 해야 하는지? 스티븐의 종교관과 관련하여.
- e. 스티븐의 후기경으로의 탈바꿈을 어떻게 해석해야하는지? 혹은 ‘I’m suffering the agony of the damned (2679)’에서 처럼 그는 예수를 흉내 내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분석해야하는지?

<토론 및 의견>

<최석무>

-2495-96행에서 스티븐은 성경에 나오는 구절을 암송하면서 자신을 탕아에 비유한다. 그렇지만 2496행에서 “go to my.”라고 하면서 home이나 house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아버지가 계신 집에 가는 것을 꺼려한다. 그에게 아버지는 더 이상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여기서 조이스의 전형적인 글쓰기 스타일을 볼 수 있다. 『율리시스』가 호머의 『오딧세이』를 패러디 하면서 같으면서 다르

듯이, 스티븐도 탕아와 같으면서도 다른 점이 있다.

-2546행에 “To hell with the pope”에서 교황이 죄가 없다는 “교황무오설”(Papal Infallibility)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성경에 따라서 인간은 모두 죄가 있음을 보여준다. 조이스는 성직자뿐만 아니라 교황도 죄가 있음을 보임으로 가톨릭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다.

<전은경>

-Fall의 주제: 이 주제는 <Finnegans Wake>의 제목에 내재되어 있는 주제로 이 작품 전체에 걸쳐 되풀이되어 다루어지는 주제입니다. “Circe” 장은 특히도 극에 달하는 환상의 세계에서 인간과 짐승의 경계가 무너지지요. 인간의 야수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하면서 Fall의 주제를 탐색하게 하는 장으로 보입니다.

-“Circe”의 장과 <오디세이>에서 사람을 짐승으로 바꾸는 마녀인 Circe의 이야기의 병행이 절묘하게 잘 들어맞은 점.

<손승희>

-2582-3행: Philip Sober (술 안 먹은 필립→술에 취하지 않은 자아)의 말답게 정통교리에서 말하듯 ‘예수님을 (비둘기 모습으로 묘사되는) 성령으로 잉태되신 존재’로 봄. 이는 다분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두고 불경스러운 해석을 유도하는 질문의 답으로 나온 대사 부분. 필립의 또다른 자아로 보이는 Philip Drunk의 짓궂은 질문 Qui vous a mis dans cette fichue position? 은 2장에 언급되었던 같은 시행을 환기시킴. 2장에서 the Pigeonhouse에 이어서 나왔던 ‘pigeon’이 언급된 시행에서는 sacre (sacred)가 빠져 있어서 시의 화답이 불경스럽게 진행되었음. — Qui vous a mis dans cette fichue position? / — C’est le pigeon, Joseph. (U 2.1-2 참조) 재미있게도 15장 이 부분에서는 술취한 필립이 근엄하게 (gravely) 질문하고, 술기운 없는 필립이 가볍게 (gaily) 대답하고 있는 대조적인 분위기를 그들 대화 내용과 연결해 보면, “누가 그대를 이처럼 형편없는 처지에 빠뜨린 걸까, 필립?” “성령이 그랬지. 필립”이 나온다. 또한 프랑스 작가 레오 팍실의 <예수의 생애> 에서 예수의 아버지가 비둘기라는 답을 담은 시행은 현재 시제로 나오는 데에 비해서, 15장 2585행에서는 반과거로 처리된 점도 두 필립 뒤에서 인물을 조종하는 존재를 느끼게 함. (우리 술자리 농담에서처럼 술 ‘주’자 ‘주’님을 모신다는

말장난이 필립의 대화에서도 통하는 건지... 원^^)

<김길중>

-(422쪽 2494-50행의 Stephen의 말): 이 말은 태반이 스티븐 혹은 스티븐과 관련하여 이미 앞서서 나왔거나 나왔음직한 어구(verbal motif)를 mosaic하여 현재의 스티븐을 표현한 것. 예컨대 Piano 앞의 스티븐은 아침 해변 Proteus장 모두의 “Ineluctable modality of the visible”의 시각실험을 되풀하고 있다. Bloomsday의 Bloom과 Stephen의 방황과 조우는 Homer 구도의 되풀이와 같다. Matthew Arnold가 Dover Beach에서 현재의 Dover 바다 관조가 Sophocles의 에게 바다와 겹치면서 관념과 사색이 되듯이, 이 스티븐의 묘한 자기 패로디도 우스꽝스러우면서도 기본적으로는 관념과 사색의 순간이다. “Imitate pa.”의 “pa”는 아버지 Dedalus의 피아노 치는 모습, 곧 사사로운 기억의 장면 아닐까? (김길중)

-[Zoe와 Virag의 이름에 관하여]

Zoe는 zoology의 zoa처럼 “동물” 또는 태생상 spermatozoa 속에 들어 있는 “zoa”를 환기하는 말로 보인다. 곧, 인간이 근원상 “animal being”임을 일깨우는 장치인 것 같다. Virag는 이에 대비된다. 기기묘묘한 이론을 농하며 나타나는 우리의 주인공 Bloom의 조상Virag는 vir 곧 “man” 혹은 “human”이니까, Bloom은 Son of Man도 된다. 그런데 Virag는 이미 죽었으므로 “망령”이랄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존재는 사실은 망령 내지 유령에 진배없는 “관념”의 조작(construct)이라고 말하는 것 같다. 어쨌든 Zoe와 Virag는 morality play의 등장인물들처럼, 다분히 allegory를 위해 명명(命名)된 인상을 준다. (스치는 생각이 하나 더 있다. Virag가 조이스의 cruel joke일지 모른다는 생각, 곧, “vir+rag” 그러니까 “human rag”인지 모른다는 생각이 그것이다. 과잉해석일 수도 있다.) 원래 Virag는 Hungary에서 대체로 흔한 이름으로 본거지 말로 Flower의 뜻이며 이것이 Bloom의 익명인 Henry Flower의 근원이다. 그렇더라도 위의 연상을 가능케 하였고 때문에 작가가 굳이 이 이름을 채택하였을 수 있다. 인터넷을 뒤져보니 실제 헝가리 사회에서 “Virag”라는 이름은 남녀 모두에게 쓰이고, 또 surname, given name에 두루 쓰이는 것 같다. 민활무비한 작가가 이렇게 이 이름이 가지는 특별한 “의상(衣裳)의 도착역량”(transvestite capacity)을 주목하고 Bloom의 조상으로 삼

있을 수도 있다.

<토막존평>

“Circe 나방이에 관한 사사롭고 잡다한 소회”

김 길 중

지난해 12월과 금년 1월 양차 독회에 걸쳐 우리는 오며가며 “Circe나방이”와 부닥쳤고, 김종건 교수는 누차에 걸쳐 이 moth의 상징 의미에 대해 각별히 주목할 것을 주문하였다. 마침 나에게 사사롭이 떠오르는 토막생각이 있어 두서없는 대로 그 대강을 적어본다.

- (1) 첫 출현은 409쪽 2041~2행의 “Round and round a moth flies, colliding, escaping.”이다. 이 moth는 한 네댓 차례 더 나타나는 정도지만, Bloom의 의식을 파고드는 나방이 “everflying”(420: 2406)으로 묘사된 것처럼, 그 존재감이 크다. 나방은 “veiled mauve light” 주변을 끊임없이 맴도는데, 이것이 그의 “행동”이다. 421쪽 2468~5에 이르면 “I’m a tiny tiny thing”하고 노래한다. 이것이 대미(大尾)인데, 이것은 그의 “언어”이다.
- (2) 그 언어는 맹목과 탐닉의 언어이다. 부나방의 노래(chanting)는 7행인데, 그 운(rhyme)이 “thing,” “spring,” “ring” ... “Bing!” 등 친편일률로 “-ing”이다. 계속해서 등불 속으로 웅! 팽! (“Bing!”) 뛰어드는 외골 충동의 신체에 걸맞다. 일곱 마디가 마디마다 잉!(-ing”)으로 끝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flying,” “ring,” “wing”의 세 번의 내재율(internal rhyme)을 합치면 자기함몰의 운율이 안팎으로 잉! 웅! 10번을 거듭한다. 노래(chanting)에 뒤이어 팔호 속에서 “flapping”하고 소리치는 설명의 말까지 합치면 모두 11차례나 된다. 이 caricature의 지나침, 터무니없음, 우스꽝스럽고 어리석음은 주제(주제? 꼴?)가 부나방이니까 용납된다.
- (3) 이 “Circe 부나방”은 소규모 극중극(play within a play in miniature)처럼 읽히는 면이 있다. 불륜과 스티븐을 필두로, 이곳에 출몰하는 군상들 모두가 부나방 행동과 부나방 언어에 갇혀있지는 않은가? 책의 독자는 어떠한가?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Moth는 조이스가 굳이 “nighttown”이라고 부른 더블린 흥등가의 주거자로서 격이 맞는 것 같다. 여기 출현하는 사람들이 본성의 비이성과 그 어둠으로 이곳에 있듯이, 부나방의 밤 활동(nocturnal activity)은 나비(butterfly)의 낮 활동과 한가지로 생물로서 타고난 운명, 팔자소관이기 때문이다.

- (4) 약간의 텍스트 비평이 필요하다. Gabler판은 이 노래의 제시 방식에서 이전 판과 다소 다르다. Gabler판에서 노래하는 부나방은 명시적 인격(人格)(?)을 갖춘 등장인물이다. 421쪽 하단에서 “THE MOTH”는 예의 중앙정렬로 표시되어 있다. 이전 판에서는 7행 노래가 선행하는 “VIRAG”의 대사에 별도 중앙처리로 끼어든(interpolation) 외래물로서 노래하는 자가 누구인지 표시가 없다. 내용상 부나방의 목소리라고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양쪽 모두 잘 읽히고 기술적으로도 일관성을 가진다고 본다.
- (5) 그러나 노래에 이어, 괄호 속에 퍼덕거리는(“flapping”) 부나방의 물결이 묘사되고 곧바로 “Pretty pretty pretty pretty pretty pretty petticoats.”라는 토막 대사가 나타난다. Gabler는 이 관음적 찬탄의 말을 페이지의 좌단으로부터 안쪽으로 쑥 들여놓되, 중앙처리 된 노랫말의 좌정렬 선에는 못 미치는 어중간한 자리에서 시작하게 했다. 대사의 토막을 이렇게 애매한 위치에 두다니! 말의 내용을 보든지, 놓인 위치를 보든지, “THE MOTH” 말일 것 같지 않는데, 기술적으로는 그 애매함 때문에, 나방의 말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끔 만든다. 가만히 내용으로 보면 결국 앞선 “VIRAG” 말의 종결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기술적으로는 “THE MOTH”가 말할 다음에 오므로 그 이전의 “VIRAG”의 말이라고 할 수 없는 모양새(layout)이다. 이전 판에서는 부나방의 노래가 Virag의 말 중간에 예고 없이 끼어들고 노래가 끝나면 그냥 원대 복귀하는 배열을 했으므로 이점 무리 없고 분명했다. 그러나 Gabler의 실수 아닐까? 그럴 것 같다. “THE MOTH”라고 표시된 인물의 노래 말이 끝났으면 이어서 나오는 말은 말 주인을 표시했어야 했다. “Pretty pretty” 구(句) 앞에 다시 “VIRAG”라고. 아마, Gabler는 나방의 끼어들기가 끝났으니 마이크를 비라그에게 돌린다는 표시로 이런 어정쩡한 들여쓰기를 한 듯한데, 책 전반에 걸쳐 전무후무할 것 같다.
- (6) Circe moth 이미지의 핵심은 텍스트에 나타난 몇몇 관건적 표현에 압축되

어 있다고 본다. “Round and round a moth flies, colliding, escaping.”하는 첫 등장인물은 맹목, 충동, 반복의 인간 운명과 그 리듬(pathetic human rhythm)을 환기하고 “veiled mauve light”를 향한 헛된 비상에 나타나는 유희와 기망 및 갈구 또한 그러하다. 프로이드적인 에로스와 타나스의 몸짓이다. 노래하는 나방의 모습에는 개인적으로 Virginia Woolf의 “The Death of the Moth”이 보여주는 삶과 죽음에 관한 음울하되 처연하게 아름다운 명상, Thurber의 우화 “The Moth and the Star”에 담긴 깊고 가볍고 짜릿한 역설 등이 생각난다. 또, 셰익스피어의 Midsummer Night’s Dream에서 Moth는 Titania의 fairy servant 이다. 조이스의 나방은 겉보기에 comic gesture로 일관하지만, Woolf가 일깨워주는 운명에 관한 처연한 관조, 그런 조망도 얼핏설핏 열어준다. Thurber의 경우는 이솝처럼 스스로 교훈을 적어 이르기를, “Who flies afar from the sphere of our sorrow is here today and here tomorrow.”라고 다분히 도학자다운(genteel) 해석을 하였지만, 나방의 earthbound mortality 라는 인식을 강조한 구도는 같다.

- (7) *Ulysses*에서 moth는 이보다 앞서서 출몰하지 않았고 이후로도 나방이 자체는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제 18장 Penelope에서 moth 아닌 mothball의 꼴로 한차례 더 나타나는데, Circe의 moth와 연관해서 다소 의미 있다. Penelope에서 Molly는 매혹적인 남성 옷차림 회상을 하다가 “kilt”의 이미지를 떠올리고, 이것이 lancers 춤 장면으로 이행하며, 춤의 회상이 현실의 춤인양 마음이 분기하고, 이내 화사한 의상의 집산처를 쫓아 Belfast에 이르는데, 벨파스트는 당대의 국제도시로 외래 박물이 많은 곳이었을 것이다. Belfast에 이르러 Belfast의 “lovely linen”(!)과 나아가 일본의 “kimono”까지 상상 속에 구입하고서 이를 잘 간수하기 위해 “mothball”을 사는 상상을 한다(617: 400~6). Mothball은 좀벌레(moth, clothes moth)를 쫓는 ball 모양의 구충약이지만, 방금 열거한 Molly(그녀의 이름이 여기서 moth 혹은 mothball과 좋은 alliteration이 된다)의 환상유전(mildly erotic fanciful journey)은 “veiled mauve light”를 쫓아 끊임없이 나르는(“everflying”) “Circe moth”와 매우 닮았다.

제 75회 『율리시스』 독회

<모임>

장소: 서울 청계 광장

일시: 2010. 3. 20. (토) 오후 1:00-6:00

참석자: 이종일, 손승희, 전은경, 최석무, 이영심, 민태운, 김상욱, 김석, 남기현, 길
혜령, 엄미숙, 박진훈, 김경숙, 이인기, 홍덕선, 김길중

<내용>

무교동 스타벅스점에서 11시부터 1시까지 『피네간의 경야』 독회 진행 후 서울 청
계 광장에서 열린 <St. Patrick's Day Festival 2010>에 참여함.

프로그램: 한국-아일랜드 문화/음악 공연
아일랜드 문화 전시 (청계광장-모전교)
퍼레이드
아일랜드 전통 음식과 Guinness 시음존 운영
Fee & Andrea Band (아일랜드에서 방한하는 유명 뮤지션)
유명 DJ 홍창우의 DJ 퍼포먼스

제 76회 『율리시스』 독회

<모임>

장소: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424호

일시: 2010. 4. 17. (토) 오후 2:00-6:00

독회진행자: 이영심

범위: Ulysses, Chapter 15 "Circe," Lines 2692~ 2912

참석자: 김종건, 김길중, 이종일, 홍덕선, 김상욱, 전은경, 강서정, 이인기, 민태운,
최석무, 남기헌

<발제>

줄거리 및 주요내용

1>2692-2741

문손잡이(Doorhandle)가 등장하고 한 남자 형체가 삐걱거리는 계단을 내려간 뒤에 모자걸이에서 비옷과 모자를 벗기는 소리가 들린다. 블룸이 마지못해 출발하기 위해 문을 나서고 호주머니에서 초콜렛을 꺼내 조위에게 건넨다. 조위는 그의 어머니에게 감사하며 은박지를 벗겨 한 조각을 먹는다. 한 조각은 키티에게 주고 런치를 약 올리다가 초콜릿 조각을 던지자, 그는 그것을 입으로 받아먹는다. 블룸은 남자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남자가 떨어지는 소리를 듣자 그의 표정이 누그러지면서 조위가 그에게 내민 초콜릿을 받아먹으면서 최음제에 대한 것과 색(color)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 a. I'm very fond of what I like. (2702-3): 전형적인 언어 플레이
- b. BLOOM (Hearing a male voice in talk with the whores on the doorstep, pricks his ears.) If it were he? After? Or because not? Or the double event? (2704-6)
여기서 he는 Boylan를 가리키는 것인지?
- c. 블룸은 왜 갑자기 최음제 이야기(2735)를 하고 있는 것인지? 혹시 초콜릿이 최음제의 일종인지?

2> 2742-2833

매춘굴의 포주 벨라(Bellar Cohen)가 등장하는데 콧수염이 나 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이 땀에 젖었다고 말하고, 그녀의 시선은 커플들을 거쳐 블룸에게 머문다. 그녀의 커다란 부채가 그녀의 목과 비만한 몸에 바람을 보내고, 그녀의 매 같은 눈이 빛난다. 부채는 블룸을 보고 그의 아내가 그의 주인이라는 것, 그리고 그가 페티코트 통치하에 놓여 있다는 것을 말하고는 자신을 잊었느냐고 묻는다. 또 자신이 블룸이 꿈에 보았던 그녀가 아닌지를 묻고는 그가 자신의 것인 것이 운명이라고 말한다. 블룸은 부채의 power에 놀려서 그녀의 지배를 바란다고 말하며, 또

자신은 지쳤고 버림받았고 더 이상 젊지 않다고 말하고는 자신의 아버지에 관해서도 이야기한다. 이 때 리치 굴딩(Richie Goulding)이 나타나 간과 콩팥을 언급한다. 부채는 모든 것이 끝났으니 자기 것이 되어달라고 말하고 블룸은 부적을 잃어버린 것을 후회하며 바닷가에서 자신의 몸을 노출하지 말았어야 하면서 모든 현상은 자연스러운 원인이 있다고 말한다. 부채는 블룸에게 계속 무엇인가를 하기를 재촉하고 그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하지만, 부채가 재촉하자 그는 자신이 검은색의 매듭을 매는데 경험이 풍부하고 잘 맨다고 이야기한다. 이 때 벨라가 자신의 다리를 들어 올리고 블룸은 그녀의 발에 몸을 굽혀서 그녀의 신발 끈을 잡아당겼다가 놓다가를 반복하다가 자신은 맨스필드 구두점의 점원이 되는 것을 원했었다고 말한다. 발이 자신의 가죽냄새를 맡으라고 하고 블룸은 너무 조이지 않는지의 여부를 물으면서 신발 끈을 잘못 매는 실수는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한다. 그가 신발 끈을 매자 벨라는 그녀의 발을 마룻바닥에 내려 놓는다. 그녀가 그를 쏘아보자 블룸은 멍한 상태가 되면서 그녀의 하명을 기다리겠노라고 말한다.

- a. massive (2742), a sprouting moustache (2746-7)등 벨라는 블룸에 비해서 강건한 남성적 풍채를 보여주는데, 이것이 상징하는 바?
- b. 부채(fan)는 계속 블룸이 자신의 소유물이라고 주장하거나 혹은 성적인 행위를 강요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You are mine(2775), You may.(2778) You must.(2803)
- c. 블룸의 신발끈을 매는 행위와 매듭 매는 행위가 상징하는 바는?
I can make a true black knot.(2805)
- d. 블룸이 벨라에게 순종적인 태도를 취하는 이유?
A waiting your further orders we remain (2833)
- f. 블룸이 몰리에게 지배당하고 산다고 말하는 부채의 지적과 실제 블룸과 몰리의 관계는 상관이 있는 것인지? (남편과 아내의 관계: 이 장에서 블룸과 몰리관계가 실제 생활에서 보여지는 관계의 전복된 양상으로 보아야 할지?)

3> 2834-2912

벨로는 블룸을 수치스러운 사냥개(hound of dishonour 2835), 간통하는 엉덩이 승배자(adulterous rump 2839), ‘변 먹는자’(dungdevourer 2842)라고 부르면서 그를

모욕할 뿐만 아니라 뒤꿈치를 블룸의 목에 올려놓고 짓밟으며 그에게 태형과 매를 가하겠다고 위협하며 또 그를 ‘여자아이’(a good girl 2884)라고 부른다. 또 마구간에서 교살하여 꼬챙이에 꿰어 기름을 쳐서 구워서 먹겠다고 말하면서 블룸의 팔을 비튼다. 블룸은 벨로가 아무리 모욕적인 말을 퍼부어도 그녀를 ‘여제’(empress 2835), ‘거대자’(hugeness 2841), ‘거대대자’(magnificence 2845)라고 칭하면서 그녀에게 결코 불복종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2864) 또한 벨로가 그에게 온갖 신체적인 학대를 가하겠다고 협박하자 그녀에게 잔인하게 대하지 말아달라고 매달린다.

- a. 벨로가 블룸에게 가하는 언어적인 학대와 신체적인 학대, 그리고 그것을 순종적으로 받아들이고 그에게 애걸복걸하는 블룸의 모습이 함축하는 바는?
- b. 벨라에서 벨로로의 변화, 그리고 블룸은 벨로를 ‘empress’라는 여성형으로 부르고 있어서 gender의 혼돈이 심하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의도적인 것인지?
- c. 블룸을 지칭하는 대명사가 she로 변하는 이유는?

“With a piercing epileptic cry **she** sinks a on all fours, grunting, shuffling, rooting at his feet.” (2852-2853)

⇒ 이 부분은 블룸이 돼지로 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한 오디세이아의 내용과 조응

⇒ 그렇다면 인간에서 동물로의 변형이 갖는 다양한 함축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까?

- d. 벨라와 벨로를 등장시키는 이유? 그들의 역할 상의 차이는?

벨로의 복장에 대한 묘사와 연관된 상징성은 존재하는지?

(With **bobbed hair purple gills**[단발머리에 자주색 턱밑 균살], fat moustache rings round his shaven mouth, in mountaineer’s **puttees**(**각반**), green silver-buttoned coat, sport skirt and alpine hat with moor cock’s feather, his hands stuck deep in his breeches pockets: 2857-2890)

- e. 다른 등장인물들 조위와 플로리, 키티도 블룸은 여자로 호칭하는 이유는?

‘She’s not here.’ (2873) ‘She didn’t mean it’ (2877)

‘Don’t be hard on her’ (2880)

- f. 벨로가 언급하는 온갖 신체형(2891-2902)이 갖는 의미는?

nosering(코뚜레), pliers(집게), bastinado(매질), hanging hook(교수대용 고리),

Knout(채찍질), slaughtering, skewering(꼬챙이에 꿰기) etc.

제 77회 『율리시스』 독회

<모임>

장소: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424호

일시: 2010. 5. 15. (토) 오후 2:00-6:00

독회진행자: 이영심

범위: *Ulysses*, Chapter 15 “Circe,” Lines 2913~ 3132

참석자: 김종건, 김길중, 이종일, 최석무, 김상욱, 이인기, 김경숙, 김석, 손승희, 유
두선, 박진훈, 민태운, 윤희환, 남기현

<발제>

줄거리 및 주요내용

1> 2913-3007

벨로가 불륨을 괴롭히는 것을 지켜보던 조위, 플로리, 그리고 키티도 자신들에게 불륨을 넘겨달라고 말하고 매춘굴의 요리사인 키오 부인이 턱수염과 남자용 양말과 구두를 신고서 국수방망이를 들고 나타나 자신도 돕겠다고 말하며, 모두 달려들어 불륨을 괴롭힌다. 벨로는 여송연을 피우면서 경마 등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그것을 불륨의 귀에다 비벼서 끈다. 불륨은 소리치지만, 벨로는 그에게 매 10분마다 빌라고 말하면서 그가 말인 것처럼 탄다. 그러자 플로리와 조위가 서로 타겠다고 말하지만, 벨로는 아직 멀었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엉덩이에서 코르크 마개를 빼서 방귀를 끼고 다시 닫는다. 이 때 불륨은 자신이 남자가 아니라 여자라고 말하고, 벨로는 그가 이제부터는 “남자가 아닌 상태(your are unmanned)”라고 말하면서 남자 옷을 다 벗으라고 말한다. 이어 가발, 향수, 백분을 바르고 드레스 페티코트등을 입힐 것이라고 말하자, 불륨이 화장을 한 하녀로 바뀌어 자신이 아내 옷을 입어 본 적이 있음을 이야기한다. 벨로는 불륨의 모습을 도미노 가면을

쓰고 오염한 자태를 뽐내면서 스커트를 걸치지 않는 넓적다리나 숫염소의 젖통을 보여주는 모습으로 묘사하며, 그가 미리암(Miriam)으로 변해서 상대한 다양한 남자들을 열거한다.

- a. 블룸의 자신은 ‘남자가 아니고 여자’(Not man. . . Woman 2962)라는 언급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 b. 벨로 역시 블룸이 한 말을 받아들이고 복장 변화를 강요하는 이유는?
 ‘You will shed your male garments’ (2966)
 ⇒ 옷을 바꾸어 입듯이, gender적 구별이 인간에게 고정된 것이 아니라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것으로 해석해도 되는 것인지?
- c. 블룸을 매춘부로 변형시키는 의도는?

2> 3008-3060

블룸은 자신을 코르셋 숭배자로 만든 것은 누이의 코르셋 심지에 반한 제럴드였다고 말하고, 그에 의해서 자신은 고등학교 때 *Vice Versa*에서 여자 역할을 했던 경험이 있다고 말하고, 벨로는 블룸이 여자자세로 변기에서 볼일을 본다고 놀린다. 블룸은 이에 변명하자, 벨로는 서서 볼일을 보라고 명령하면서 그의 과거의 죄가 수백 개가 있다고 언급하자, ‘과거의 죄들’이라는 인물이 등장한다. 그는 블룸이 블랙교회에서 한 여인과 은밀한 결혼을 했으며, Miss Dunn과 전화로 입에 담을 수 없는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매춘부에게 변소에 배설물을 버리도록 한 것, 변소에 남자들에게 밤의 파트너를 소개했다는 낙서를 한 것 등등을 이야기한다. 이에 벨로가 블룸에게 가장 음란한 죄를 고백하라고 재촉하자, 말없는 비인간적인 얼굴을 한 집단이 결눈질하며 앞으로 나오다가 사라지고, 또 지껄인다. 그러자, 블룸은 자신에게 묻지 말하고 하고 벨로는 대답하라고 채근한다. 블룸은 더듬거리며 말을 시작하고, 벨로는 이번에는 나가라고 그리고 입 닥치라고 소리친다.

- a. 블룸의 여장과 여자처럼 행동하는 모습이 강조되는 이유?
- b. 블룸이 벨로에게 꿈쩍하지 못하고 당하는 이유?
- c. 블룸의 ‘과거의 죄들’은 거창한 죄가 아니라 블룸의 사소한 행위들을 나열하는 것에서 오는 특별한 효과가 있는 것인지?

3> 3061-3132

블룸은 벨로를 Master, Mistress, Man-tamer(3062)이라고 부른다. 벨로는 블룸에게 앞으로 부인들의 냄새나 속옷과 화장실을 청소할 것을 이야기한 뒤에 그에게 “고마워요, 마님”이라고 말하라고 하자, 그는 그대로 한다. 벨로는 이어서 블룸에게 그가 하게 될 온갖 허드렛일을 열거한다. 그리고는 블룸의 너무나 여성스러워서 남자들이 반할 것이라고 이야기 한 뒤에 가슴을 부풀리고 미소를 지으라고 한다. 그리고는 소매를 걷고는 블룸의 음문에 집어넣고는 꽤 깊다고 말한다. 한 입찰자가 1플로린을 부르고 한 목소리는 1실링 8펜스는 너무 많다고 하고, 찰스 알베르타 마쉬는 처녀임에 틀림없다고 말한다. 벨로는 경매장에서처럼 망치로 치면서 2 실링이라고 이야기하고, 당나귀피부, 부드러운 근육과 살, 많은 양의 우유를 생산한다고 자랑한다. 벨로는 또 블룸의 의상을 짧은 치마, 투명한 스타킹등 매춘부의 그것에 빗대어 구체적으로 열거한다. 이에 블룸은 수줍어하는 처녀 행세를 한다(O, I know what you're hinting at now!(3124-5)). 그러자 벨로는 블룸의 남성으로서의 기능이 가능한 것인지를 문제시한다(Can you do man's job? -3132).

- a. 블룸을 여성으로 취급하는 것이 계속되며, 이 장면에서는 마치 한 마리의 마소를 경매하는 분위기를 연출한다. 어떤 의도를 드러내는 것인지?
- b. 여성과 남성을 혼합하고 격을 혼합한 단어들이 나온다. 어떠한 효과를 내는지?
ex) shis, hrim (3102)
- c. 벨로 자신도 호칭을 마님이라고 칭하라고 하는 부분을 포함하여 여성으로 전환된다. 그 의도는?
- d. 블룸의 남성의 성적 기관과 기능에 대해서 노골적인 언급의 효과는?